2026년 11월 홍콩관광시장 리포트

PART 1 관광통계

□ '26년 누적 관광통계 분석 및 '26년 11~12월 전망

○ '26년 9월까지 홍콩 방한객은 546,275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6% 상승

○ 하계시즌 종료 후 전통적 비수기인 9월 방한수요가 둔화되었으나 10월 말~11월 중순 추계(단풍) 시즌 본격화에 따른 방한수요 증가 전망

□ 방한 홍콩인 관광객 수

○ '26년 1~9월 '19년 동기 대비 9.5% 증가, 전년 동기 대비 18.6% 증가

연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총계
2026	**37,710**	**47,197**	**59,364**	**70,802**	**59,888**	**65,690**	**76,237**	**78,792**	**50,595**				546,275
2025	44,278	30,270	44,030	64,591	51,363	56,109	64,224	64,860	40,879	44,671	49,635	68,239	623,149
2024	25,755	35,458	49,235	42,654	45,790	54,449	58,305	61,864	40,033	52,439	46,766	58,670	571,418
2023	26,777	16,237	27,155	38,138	28,617	31,874	39,527	43,031	30,424	41,375	38,052	42,777	403,984
2019	35,896	51,312	46,068	76,104	57,026	61,728	59,036	65,958	45,911	65,544	58,600	71,751	694,934

* (출처) 한국관광데이터랩 https://datalab.visitkorea.or.kr/

□ 방홍 한국인 관광객 수

○ '26년 1~9월 '19년 동기 대비 64.3% 수준 회복, 전년 동기 대비 12.6% 감소

연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총계
2026	**129,083**	**96,260**	**82,425**	**64,530**	**58,539**	**31,791**	**41,168**	**44,7545**	**47,924**				596,465
2025	126,739	121,523	90,102	62,155	73,233	52,364	50,770	55,884	49,789	91,979	96,160	92,918	963,616
2024	100,022	84,707	67,393	63,804	56,604	47,223	48,089	60,032	64,796	78,822	85,029	96,705	853,226
2023	6,782	14,204	19,312	21,112	25,909	25,052	29,540	34,356	42,165	48,254	62,256	74,057	402,999
2019	161,115	143,804	136,225	97,710	106,017	92,229	78,210	72,166	40,684	45,591	35,402	33,387	1,042,540

* (출처) 홍콩관광청 파트너넷 https://partnernet.hktb.com/

□ 홍콩인 아웃바운드 관광객 수 *항공, 페리, 철도이동 등 모두 포함

○ '26년 1~9월 '19년 동기 대비 30.3% 증가, 전년 동기 대비 8.8% 증가

연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총계
2026	**1,0202,038**	**9,422,176**	**10,553,190**	**11.182.960**	**10,526,034**	**9,942,434**	**10,049,028**	**10,904,099**	**10,442,603**				93,224,562
2025	9,665,937	7,845,160	9691689	10,500,935	9,739,974	9,450,365	9,648,151	10,308,328	8,841,501	10,161,382	10,270,382	11,418,191	117,541,995
2024	7,467,866	7,531,411	9,291,001	7,918,944	8,276,352	9,026,294	8,751,788	9,377,046	8,425,953	9,114,783	9,209,817	10,311,374	104,702,629
2023	1,657,751	3,608,113	5,326,148	6,357,321	5,743,364	6,031,857	6,810,259	7,160,569	6,309,797	6,958,609	7,447,015	8,792,558	72,203,361
2019	7,740,202	7,158,465	8,200,626	9,003,627	8,141,938	8,317,071	7,972,662	7,565,745	7,459,267	7,415,097	7,216,573	8,526,688	94,717,961

* (출처) 홍콩관광청 파트너넷 https://partnernet.hktb.com/

□ "항공" 이용 홍콩인 아웃바운드 관광객 수

○ '26년 1~9월 '19년 동기 대비 90.6% 회복,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

연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총계
2026	**807,584**	**943,368**	**988,515**	**1,030,615**	**927,601**	**975,273**	**1,141,310**	**1,068,475**	**823,978**				8,706,719
2025	987,169	730,359	871,688	1,176,616	936,205	950,682	1,054,326	1,081,042	790,245	959,946	919,632	1,231,000	11,688,910
2024	722,035	850,802	1,016,345	796,307	892,035	1,017,652	1,108,359	1,056,080	824,952	903,312	919,000	1,171,033	11,277,912
2023	564,915	438,491	634,760	764,369	709,969	804,488	966,249	919,504	732,974	800,701	808,093	1,053,332	9,197,845
2019	870,548	959,648	971,690	1,240,660	1,090,184	1,182,381	1,233,244	1,112,268	952,674	1,012,058	1,038,742	1,304,097	12,968,194

* (출처) 홍콩관광청 파트너넷 https://partnernet.hktb.com/

□ 홍콩 방문 인바운드 관광객 수

○ '26년 1~9월 '19년 동기 대비 87% 회복, 전년 동기 대비 11.6% 증가

연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총계
2026	**4,811,700**	**5,141,714**	**4,354,229**	**4,217,311**	**4,464,840**	**3,722,694**	**4,503,842**	**5,456,320**	**4,031,090**				40,703,740
2025	4,742,066	3,667,671	3,818,512	3,847,934	4,078,938	3,480,979	4,390,514	5,152,837	3,292,197	4,588,515	4,189,272	4,645,397	49,894,832
2024	3,825,617	4,001,190	3,401,991	3,391,381	3,398,458	3,132,598	3,921,630	4,453,877	3,062,003	4,090,054	3,568,437	4,255,551	44,502,787
2023	498,689	1,461,969	2,454,093	2,892,256	2,828,384	2,748,488	3,588,530	4,077,746	2,771,826	3,458,778	3,288,915	3,929,986	33,999,660
2019	6,784,406	5,589,628	5,860,346	5,577,201	5,916,541	5,143,734	5,196,969	3,590,571	3,104,049	3,311,571	2,626,127	3,191,466	55,892,609

* (출처) 홍콩관광청 파트너넷 https://partnernet.hktb.com/

□ 경쟁국 방문 현황('26.1~9월)

○ 전년 동기 대비 일본 7.7%↑, 대만 5.8%↓, 태국 1.1%↑, 싱가포르 6.6%↓

○ '19년 대비 일본 18.2% 증가/ 대만 70.2%, 태국 60.2%, 싱가포르 67.5% 회복

연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총계
일본	'26	**200,048**	**233,900**	**216,300**	**226,000**	**207,900**	**214,300**	**272,500**	**247,300**	**145,000**				1,963,254
	'25	243,700	195,500	208,400	263,600	193,100	166,800	176,000	226,100	149,500	196,000	207,600	291,100	2,517,369
	'24	186,300	205,900	231,400	184,500	217,500	250,600	279,100	246,600	170,200	198,800	227,062	285,600	2,683,438
	'19	154,292	179,324	171,430	194,806	189,007	209,030	216,810	190,260	155,927	180,562	199,700	249,600	2,290,748
대만	'26	**76,023**	**81,833**	**92,887**	**107,973**	**85,809**	**83,354**	**108,860**	**120,241**	**67,597**				824,577
	'25	89,391	78,870	84,521	126,554	96,859	94,236	101,602	129,122	74,649	98,688	93,386	135,855	1,203733
	'24	81,020	92,848	124,375	84,543	87,241	101,696	104,642	127,837	81,089	86,715	92,567	133,644	1,198,217
	'19	93,187	106,441	117,545	170,484	128,377	137,074	151,395	164,668	106,150	116,971	129,635	176,296	1,598,223
태국	'26	**40,346**	**55,659**	**47,371**	**55,094**	**47,433**	**44,342**	**71,308**	**76,096**	**43,576**				481,225
	'25	69,047	43,411	37,395	52,965	41,826	51,345	66,823	72,802	40,295	50,513	51,004	65,732	643,158
	'24	47,831	67,278	78,463	59,401	64,981	81,602	97,896	107,831	59,891	62,126	66,244	82,532	876,076
	'19	60,464	80,543	74,295	88,945	84,897	102,546	108,027	121,806	77,951	74,740	78,574	92,410	1,045,198
싱가포르	'26	**19,420**	**22,100**	**25,500**	**34,550**	**23,960**	**25,550**	**38,210**	**35,780**	**22,550**				247,620
	'25	25,870	21,230	23,380	34,550	32,810	27,750	38,200	38,780	22,470	26,180	25,070	21,360	337,650
	'24	23,420	26,510	35,790	24,040	23,830	23,830	33,770	35,680	26,610	25,200	24,540	23,490	329,330
	'19	30,056	38,921	34,355	52,203	36,424	36,216	50,806	52,767	35,348	36,059	40,381	44,946	488,482

* (출처) 각국 관광청. 일부 통계는 확정치 통계가 아닌 추정치 통계임.

PART 2 홍콩 주요현안

□ 2026 APEC 계기 홍콩의 참여 경과 및 주요 결과 정리

○ 2026년 APEC은 중국이 의장국을 맡아 연중 회의를 진행했으며, 11월 18~19일 인접 도시 선전(深圳)에서 제33차 APEC 경제지도자회의가 개최된 가운데 홍콩은 '중국 홍콩(Hong Kong, China)' 명의의 개별 회원 경제체 자격으로 행사에 참석함

○ 정상회의에 앞서 홍콩은 10월 20~21일 APEC 재무장관회의(Finance Ministers' Meeting)를 처음으로 주최하여 역내 거시경제·금융 전망, 가계지원 재정정책, 디지털인프라금융, 금융포용성 등의 의제를 논의하고 공동성명 등 2건의 결과 문서를 채택함

○ 존 리(John Lee) 행정장관은 11월 17~19일 선전 일정에 정부 고위급 대표단을 이끌고 참석하여 말레이시아·베트남·브루나이·태국·싱가포르 등 아세안(ASEAN) 5개국과 페루 등 총 7개 회원 경제체 정상 및 고위급 인사와 양자 회담 및 교류를 진행함

○ 태국 등 아세안 정상들과의 회담에서 홍콩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아세안 10개국과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이 참여한 세계 최대 규모의 다자간 자유무역협정) 가입 지지를 확인했으며, 홍콩 당국은 지난 9월 출범한 RCEP 가입 실무그룹 절차를 통해 가입 협의를 이어갈 계획임을 밝힘

○ 회의 기간 중 홍콩은 칠레와 양자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체결하여 만 18~30세 청년이 최대 1년간 상대국에 체류하며 취업·어학연수 등을 할 수 있도록 합의했으며(중남미 국가 중 최초), 기존 교역국 외에 중동·중앙아시아·남미 등으로 통상 네트워크를 다변화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함

○ 이번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APEC 지도자 선언 및 '선전 전망(Shenzhen Outlook)'에는 무역 디지털화, 인공지능(AI) 등 신흥 기술, 공급망 회복력, 역내 연결성 강화가 포함되었으며, 특히 2027~2030년 적용되는 'APEC 무역 디지털화 협력 프레임워크'가 출범함에 따라

전체 대외무역의 87%(2025년 기준)가 APEC 회원 경제체와 이루어지는 홍콩의 무역·물류 환경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

○ 홍콩 현지 언론들은 선전을 비롯한 본토 대만구(GBA) 도시들의 제조·기술 비중이 커지는 상황에서, 홍콩이 보통법 체계와 자본 조달·전문 서비스 기능을 활용해 본토 기업의 해외 진출 및 글로벌 자본 유입을 중개하는 역할을 얼마나 실질적인 경제 성과로 연결할 수 있는지가 향후 과제가 될 것이라고 분석함

□ 일론 머스크의 홍콩 초저출생 경고 발언과 현지 인구 통계·정책 동향

○ 테슬라·스페이스X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는 2026년 11월 16일 소셜미디어 X에서 전직 홍콩 투자은행가 출신 작가 존 르페브르(John LeFevre)의 게시글에 답글을 달며 "홍콩은 오랫동안 세계에서 출생률이 가장 낮은 곳 중 하나였으며, 상황이 바뀌지 않으면 곧 사라질 것(They will be gone soon if that doesn't change)"이라고 언급함

○ 홍콩 정부 통계처 자료에 따르면 2025년 홍콩의 연간 출생아 수는 전년(약 3만 6,700명) 대비 15.3% 감소한 약 3.11만 명(통계처 잠정치)으로 집계되었으며, 가임여성 1명당 합계출산율은 0.73명 안팎(추정)으로 인구 대체 수준(2.1명)을 크게 밑돌며 낮은 출생률 흐름을 지속함

○ 2025년 중반부터 2026년 중반까지 1년간 기준으로는 신생아 수가 2만 9,700명으로 집계되어 10년 전(약 5만 9,800명)의 절반 수준이자 사상 처음으로 3만 명 선 아래로 내려감

○ 홍콩 통계처 발표에 따르면 낮은 출생률로 인해 2025년 중반~2026년 중반 자연인구(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수치)가 2만 400명 감소했으나, 같은 기간 인재 유치 제도·가족 재결합·유학생·수입 노동자 등 순유입 인구가 3만 9,800명에 달해 2026년 중반 홍콩 총인구는 전년 대비 1만 9,400명 증가한 749만 8,900명을 기록했다고 분석함

○ 홍콩 입법회 의원 및 현지 논평가들은 높은 주거비와 양육·생활비 부담, 청년 세대의 비혼·비출산 가치관 확산이 저출생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현재 인구 규모가 외부 인력 유입으로 유지되고는 있으나 장기적인 고령화 심화와 노동력 구조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함

○ 홍콩 정부는 2023년 도입한 신생아 장려금(2만 홍콩달러)에 이어 2026년 시정연설(施政報告)을 통해 2만 홍콩달러 장려금 3년 연장 및 둘째 이상 출산 시 장려금 3만 홍콩달러로 상향, 자녀 소득공제 확대, 출산 가정 주택 구매 인지세 감면 및 공공 보육시설 확충 등 11개 출산·양육 지원 조치를 추가로 발표함

PART 3 홍콩 관광동향

<인바운드 동향>

□ **2026년 10월 홍콩 방문객 513만 명 기록: 본토 관광객 15% 증가 및 가을 행사 효과**

○ 홍콩관광청(HKTB)이 발표한 잠정 통계에 따르면 2026년 10월 홍콩 방문객 수는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한 약 513만 명(5,128,162명)으로 집계되었으며, 1~10월 누적 방문객 수는 약 4,583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 늘어난 수치를 기록함

○ 10월 중국 본토 방문객은 전년 동월 대비 15% 증가한 약 397만 명(3,971,128명)을 기록하며 전체 방문객 증가세를 견인했고, 1~10월 누적 본토 방문객 역시 14% 늘어난 약 3,587만 명으로 집계됨

○ 국경절 황금연휴를 비롯해 국제중추채등회(International Lantern Spectacular), 홍콩 와인 앤 다인 페스티벌(Hong Kong Wine &Dine Festival), 각종 콘서트·스포츠·전시 행사와 대만구(GBA) 인근 도시들의 대형 전시 행사가 역내 이동과 방문객 유입 배경으로 지목됨. 특히 올해는 할로윈 기간(3일간) 방문객이 약 60만 명으로 34%가 증가하였음.

○ 시장별로는 장거리 시장이 전년 동월 대비 19% 증가한 약 44만 5,000명(444,627명), 신흥 시장(New Markets)이 37% 증가한 약 10만 8,000명(107,696명)을 기록한 반면, 단거리 시장은 전년 10월 중추절 연휴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14% 감소한 약 51만 명(509,601명)으로 집계됨

□ 홍콩관광청 '홍콩 고메 먼스(Hong Kong Gourmet Month)' 11월 실시

○ 홍콩관광청(HKTB)은 2026년 11월 한 달간 시내 400여 개 레스토랑과 바, 식음료(F&B) 업장이 참여하는 '홍콩 고메 먼스(Hong Kong Gourmet Month)' 캠페인을 11월 2일 시작함

○ 행사는 파인다이닝 와인 페어링, 미쉐린·하버뷰 식당 메뉴 할인, 오후 9시 이후 야간 다이닝, 칵테일 프로모션, 란콰이퐁(LKF) 야간 프로그램 등 5개 테마로 구성되었으며, 와인앤다인 페스티벌 방문객에게 배포된 특전 카드를 통해 250개 이상의 추가 혜택이 제공됨

○ 미쉐린 등급 식당 및 하버뷰 업장 등 200여 곳이 참여하는 '테이스트 모어 홍콩(Taste More Hong Kong)'에서는 11월 한정 점심·저녁 메뉴를 최대 30% 할인 판매하고, 약 15개 주요 레스토랑은 15종의 와인 페어링 메뉴를 선보임

○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중심으로 한 '홍콩 레이트나잇 다이닝 가이드(Hong Kong Late-Night Dining Guide)'에는 센트럴·셩완, 완차이, 코즈웨이베이, 침사추이, 몽콕, 삼수이포, 카오룽시티 등 주요 상권의 약 80개 브랜드·100여 개 업장이 참여해 야간 할인 및 연장 영업을 진행함

○ 야간 동선에는 완차이 금·토요일 오후 9시 30분 시작 뷔페 시간대 신설과 오후 11시 30분까지 영업 연장, 카이탁 스포츠 파크(Kai Tak Sports Park) 공연 연계 카오룽시티·토콰완 일대 새벽 4시까지 영업 업장 운영, 6개 테마 바 노선(30개 바 대상 399홍콩달러 시그니처 칵테일 3잔 이용권) 및 란콰이퐁 20여 개 업장의 워크숍·DJ 행사 등이 포함됨

□ 카이탁 스포츠 파크 개장 18개월 관람객 280만 명 돌파

○ 카이탁 스포츠 파크(Kai Tak Sports Park)가 2025년 3월 개장 이후 18개월간 190건 이상의 국제·현지 스포츠, 문화 및 엔터테인먼트 행사를 개최했으며, 주경기장(카이탁 스타디움) 누적 관람객은 280만 명을 넘어섬

○ 개장 이후 콜드플레이(Coldplay), 더 위켄드(The Weeknd), 블랙핑크(BLACKPINK), 빅뱅(BIGBANG) 등 해외·지역 주요 아티스트 공연과

대형 스포츠 대회가 열리며 홍콩 및 대만구(GBA), 해외 관람객을 유치했고, 향후 방탄소년단(BTS), 찰리 푸스(Charlie Puth), 브루노 마스(Bruno Mars, 2027년 5월 예정) 등의 공연이 예정되어 있음

○ 홍콩 문화체육관광국(CSTB) 로산나 로 국장 발언 및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전체 누적 방문객은 700만 명을 넘겼으며, 2025년 홍콩 세븐스(3일간 11만 명 이상 입장, 해외 관람객 30% 이상) 및 제야 카운트다운 콘서트(단일 일자 약 12만 명 방문) 등 대형 이벤트가 집중됨

○ 상권 및 외식·소매 분야에서는 단지 내 카이탁 리테일 몰(Kai Tak Mall)의 임대율이 90%를 웃돌고 매출이 개장 초기 대비 20% 이상 늘었으며, 대형 행사 개최 시 인근 식음료(F&B) 업장 유동인구가 약 20% 증가하고 매출이 25~30% 상승한 사례가 보고됨

○ 2026년 8월 '홍콩 풋볼 페스티벌 2026(Hong Kong Football Festival 2026)' 2경기에 12만 5,000명 이상이 입장한 당시 리테일 몰 일일 방문객이 약 12만 명에 달했고, 대형 행사 시 단지 내 식당·바의 30% 이상이 공연 종료 시간대에 맞춰 영업을 연장하며 야간 소비를 뒷받침함

○ 이와 함께 행사 입장권 소지자를 대상으로 카이탁 리테일 몰 및 시내 100여 개 제휴 식음료 업장에서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티켓 스터브 경제(Ticket Stub Economy)' 모델을 운영해 공연·경기 관람객의 소비를 쇼핑·외식·야간 체류로 연결하고 있음

○ 홍콩 정부 역시 《홍콩특별행정구 경제·사회발전 제1차 5개년 계획(2026~2030)》 및 《2026년 시정연설》에서 '문화·체육·관광(文體旅) 융합 발전'과 '스포츠 산업화 및 메가이벤트 경제(盛事經濟)'를 핵심 정책 과제로 추진하며, 카이탁 스포츠 파크를 대형 국제 대회·공연 유치 거점으로 삼아 인근 상권·숙박·교통·관광 산업 간 시너지를 확대하고 있음

○ 카이탁 스포츠 파크는 대형 행사 수용 시설의 한계를 보완하고 관람객 소비를 쇼핑·외식·야간 체류로 연결함으로써, 단발성 이벤트를 지속적인 경제 효과로 전환하는 메가이벤트 경제의 거점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향후 홍콩의 국제 행사 개최 역량과 대만구(GBA) 교류 허브 위상을 뒷받침할 것으로 전망됨

□ **홍콩관광청 '홍콩 윈터페스트' 역대 최대 규모 개막**

○ 홍콩관광청(HKTB)이 2026년 11월 18일 연례 겨울 행사인 '홍콩 윈터페스트(Hong Kong WinterFest)'를 역대 최대 규모로 개막하고, 대표 프로그램인 '홍콩 윈터 원더랜드'를 기존 중심지에서 센트럴(Central), 침사추이(Tsim Sha Tsui), 코즈웨이베이(Causeway Bay) 등 3대 주요 거점으로 처음 확대 운영함

○ 센트럴 스태추 스퀘어 가든(Statue Square Garden) 일대에서는 홍콩랜드(Hongkong Land)와 협업해 높이 22m 이상의 야외 크리스마스트리와 12m 길이 증기기관차 조형물, 산타 우체국 등을 설치했으며, 중국은행빌딩·HSBC 본사·종심법원 등 주변 9개 랜드마크 외벽을 배경으로 8막 구성의 멀티미디어 라이트 쇼를 상영함

○ 침사추이 워터프론트 일대에서는 푸르덴셜 홍콩 후원으로 홍콩문화센터·시계탑에서 홍콩우주박물관·홍콩예술관 외벽까지 이어지는 구간에서 <크리스마스 콘서트의 별들>과 <오로라(Northern Lights)> 등 2종의 야간 조명 프로그램을 운영함

○ 코즈웨이베이에서는 11월 25일부터 하이산 개발(Hysan Development)과 협업해 윤핑로드(Yun Ping Road)와 하이산 애비뉴(Hysan Avenue) 일대에 조명 연출과 40m 길이 야외 바 '엘프스 나이트 아웃(Elves' Night Out)'을 운영하고, 12월 중순부터는 크리스마스 마켓 및 체험 워크숍을 추가로 진행함

○ 아울러 홍콩관광청은 2026년 11월 18일부터 2027년 1월 5일까지 알리페이HK(AlipayHK), 알리페이(Alipay), 알리페이+(Alipay+)와 제휴해 홍콩 내 6,000여 개 가맹점에서 약 350종의 외식·소매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윈터 원더 딜(Winter Wonder Deals)'을 시행하며, 본토 및 해외 알리페이+ 이용객에게는 총 10만 건의 소비 혜택(최대 500홍콩달러 리워드 또는 우수관광서비스(QTS) 가맹점 20% 할인·최대 100홍콩달러 한도)을 선착순 제공함

○ 이와 함께 업계와 협업해 로컬 메뉴와 기념품 등 50여 종의 '온리 인 홍콩(Only in Hong Kong)' 특화 상품을 선보이며 연말 카운트다운 불꽃놀이까지 겨울 시즌 관광·소비 진작 프로그램을 이어갈 예정임

<아웃바운드 동향>

□ 일본 공항 면세 환급 제도 개편 후 홍콩 여행객 반응 등

○ 일본 정부가 2026년 11월 1일부터 매장 내 즉시 면세 대신 출국 시 공항·항만에서 환급 절차를 밟도록 제도를 개편하면서, 홍콩 여행업계와 관광객 사이에서는 시행 초기 공항 환급 키오스크 부족 및 대기열 혼잡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

○ 제도 시행 직후(11월 초) 현지 여행업계는 이용객별 쇼핑 규모 차이와 키오스크 대수 제한, 성수기·출국 피크 시간대 대기 시간 예측의 어려움을 지적하며 대량 구매객의 개별 조기 이동이나 단체 일정 조정 필요성을 언급함

○ 반면 실제 공항 이용 후기를 전한 홍콩 관광객들 중 일부는 셀프 환급 키오스크 여권 스캔 절차가 1분 이내로 빠르게 완료되었다고 평가하는 등, 초기 우려와 실제 현장 체감 시간 사이에 차이가 나타남

○ 새 제도는 면세품 구매 후 90일 이내 수하물 위탁 및 탑승 전 단계에서 키오스크 스캔을 마쳐야 하며, 선별 검사 방식이 적용돼 화면이 녹색이면 환급이 완료되고 적색 표시 시 세관 현물 검사를 받아야 함

○ 일본을 자주 찾는 홍콩인들 사이에서는 쇼핑 규모가 큰 여행객일수록 출국 당일 공항 체류 시간과 동선을 여유롭게 잡아야 한다는 인식이 형성되고 있으며, 제도 정착 초기에 나타난 긴 줄·지연 우려와 실제 신속 처리 사례가 혼재되면서 출국 시간 관리가 핵심 변수로 부각됨

□ 신황강 검문소 개통 한 달간 344만 명 이용: 역대 최다 통관 기록 및 원스톱 통관 도입

○ 2026년 10월 12일부터 24시간 운영을 시작한 신황강 검문소(New Huanggang Port)가 개통 후 한 달간 출입경 여객 344만 명을 처리했으며, 선전 출입경변방검사총국 집계 기준 일평균 이용객은 약 11만 4,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배 수준을 기록함

○ 같은 기간 출입경 차량은 28만 대를 기록했으며 일일 차량 통관량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날이 세 차례 나타났고, 10월 31일에는 하루 이

용객이 16만 1,000명에 달해 2019년 이후 일일 최다 기록을 세움

○ 별도로 홍콩 특구 정부가 개통일(10월 12일)부터 11월 15일까지 집계한 통계에서도 일평균 여객은 약 8만 8,000명(기존 록마초우 관제역 대비 2배 이상), 주말·공휴일 일평균 여객은 약 14만 2,000명으로 나타나 기존 시설 대비 이용량이 크게 증가함

○ 신황강 검문소 개통과 함께 기존 선전 황강 검문소 임시 여객청사와 홍콩 록마초우(Lok Ma Chau) 관제역의 여객 통관 서비스 및 약 30년간 운행되던 록마초우-황강 간 셔틀버스 '황바(皇巴)' 운행이 중단됨

○ 홍콩과 선전 간 육로 통행에서 처음으로 '일지양검(一地兩檢·한 곳에서 두 차례 검사)'과 '합작사험·일차방행(合作查驗·一次放行·공동 심사·원스톱 통과)' 방식이 적용되어 여객이 한 차례 대기열에서 생체·서류 심사를 거쳐 양측 출입경 절차를 동시에 마칠 수 있도록 설계됨

○ 신축 연합검문건물은 일일 최대 20만 명 처리 용량(향후 홍콩 MTR 북환선 지선 개통 시 일일 30만 명 수준)으로 조성되었으며, 홍콩 측에는 전용 버스·소형버스·크로스보더 버스 노선과 선전 측에는 선전 지하철 7호선 황강커우안역 등이 연계됨

□ 홍콩국제공항 본토·해외 연계 환승 서비스 개시

○ 홍콩국제공항(HKIA)이 2026년 11월 3일 본토 도시와 해외 목적지 간 환승 편의를 높이는 '간선·지선 연계 및 도심·원거리 연결(Linking the Trunk and Branch, Connecting Urban and Remote)' 환승 서비스를 공식 개시함

○ 전면 시행 시 본토 도시 출발 여객이 서로 다른 항공사 노선으로 갈아타는 경우에도 '단일 항공권·원스톱 체크인·최종 목적지 수하물 일괄 위탁(one ticket, one check-in, through-checked baggage to the final destination)' 절차를 이용할 수 있으며, 홍콩에서 수하물을 찾거나 재위탁할 필요가 없어짐

○ 해외 출발 여객이 홍콩을 거쳐 본토 중소 도시로 이동할 때도 동일한 상호 연계 환승 절차가 적용되며, 본토 내수 항공망과 홍콩의 국제 항공망을 연결하는 구조로 설계됨

○ 1단계 사업으로는 저장성·후베이성과의 교류 기반을 활용해 '항저우 - 홍콩(Hangzhou - Hong Kong)'과 '우한 - 홍콩(Wuhan - Hong Kong)' 환승 서비스 브랜드가 우선 운영되며, 이 중 우한 연계 서비스는 중국 중부 지역의 고속철도 및 항공 허브망과 홍콩 국제선 네트워크를 잇는 역할을 맡음

○ 홍콩 특구 정부 운수물류국(TLB)은 이번 조치가 홍콩의 제1차 5개년 계획 이행과 국제 항공 허브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추진됐으며, 향후 중국민용항공국(CAAC), 홍콩공항관리국(AAHK), 항공사 및 본토 관계 기관과 협력해 대상 지역을 점차 넓혀 나갈 계획이라고 밝힘

※ 출처 :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스탠다드, 블룸버그 등 현지 언론매체
홍콩정부 보도자료 hhttps://www.info.gov.hk
홍콩관광청 보도자료 https://www.discoverhongkong.com
싱가포르, 대만, 태국, 일본 NTO 발표자료
Hong Kong Census and Statistics Department
Wing On, EGL 등 홍콩 주요 여행사 모니터링 등